

엑수시아 - 갚을 수 없는 빚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불어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당신의 권능을 대행할 힘을 주었다. 그 권한을 '엑수시아(exousia)'라 하며 이를 대체할 괴력난신은 어디에도 없었기에, 엑수시아는 신의 은총이자 세계를 위임받은 증거였다. 다만 그 힘은 믿음에 비례하여, 의심하는 자의 기도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이때 '엑수시아'마저 함께 박탈당했다. 힘도 방향도 잃은 인간은 사방으로 흩어져 모든 것을 두고 부질없이 다투었다.

수천 년이 흘러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냈다(스스로 내려왔다고도 한다). 신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구원자는 그중 열둘을 제자로 삼아 '엑수시아'를 허락했다. 그들을 '생명의 나무'로 인도해, 언젠가 올 마지막에 영생을 주겠다 약속했다.

열두제자는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적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경외심으로 바라보았으나, 어떤 이들은 공포를, 어떤 이들은 적개심을 품었다. 그 탓에 신의 뜻은 퍼지지 못했고, 열두제자와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은 크게 충돌했다. 신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했다. 그 희생은 태초의 것까지 모든 원초적인 죄를 씻어냈다. 인간은 잃었던 힘과 권한을 되찾았고,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든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 기적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인간들은 깨달았다.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세계를 다스릴 힘은 얻었으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영원히 박탈되었다.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슬픈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가장 무거운 빚을 진 이들은 구원자이자 신이며 스승이던 이를 모신 열두제자였다. 끝내 세상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스승 자신이었다. 방향을 찾지 못한 열두제자는 네 분파로 갈라졌다.

- 갚으려는 자 - 젤로테스: 은총과 빚은 우리가 갚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
- 그냥 받은 자 - 마태: 은총과 빚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의지가 아니라 법칙이다.
- 확인하려는 자 - 도마: 우린 아직 신의 의지를 모른다. 죄는 진정으로 사해진 것인가?
- 떠난 자 - 다대오: 죄는 사해졌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이 있다. 그것이 신의 의지다.

더 슬픈 일은 뒤에 일어났다.

'열두제자 중 누군가 생명의 과실을 먼저 먹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이라면 받은 것인지 훔친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최후의 때를 위해 약속된 권한을 누군가가 이미 행한 것이다. 대의명분의 차이에 서로를 향한 의심이 뒤섞이며 갈등은 분쟁이 되었고, 분쟁은 공동의 적 앞에 빈틈을 열었다. 신을 등진 그 힘 있는 자들 중 하나가 대군을 이끌고 신의 성전을 불태웠다.

그리고 바로 그날, 불길의 한가운데에서 죽었던 자가 영생의 존재로 눈을 뜬다. 그에게는 이름이 없다.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해 되살아났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를 일깨운 목소리는 영생의 엑수시아를 나누었다며, 나아가 진정한 신의 기적을 대행하라 종용한다. 네 분파는 그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손을 내민다. 무기, 증명, 표본, 그리고 상징.